

# 전원속의 내집

2015 | vol 200  
10

www.uujj.co.kr



HOUSE | GARDEN | INTERIOR | LIVING



Special Theme

## 200호 특집 ·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

- + 세 아이를 위한 양평 오솔집 + 매력적인 실링팬
- + 30살 단독주택 고치기 대작전, 더심하우스
- + 이케아 싱크대, 탐나세요?

Cover House

## LAKE HOUSE

- + 3대가 모여사는 고리집
- + 스틸하우스의 재발견



〈전원속의 내집〉  
200호 기념 이벤트

*gift*

총 3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the 2000 ISSUE



어울려 사는 즐거움

# 주택이 선물한 ‘사람 사는 맛’

삼각형 지붕에 간결한 형태의 집. 마치 외국 어느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집이 판교의 파란 하늘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했다.

01 단순한 형태의 박공지붕이 집 전체를 하나로 뭉고 있다.

02 삼각형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주택의 정면. 가족의 즐거운 오후 한때를 사진에 담았다.

01 02



## House Plan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지면적 230,18㎡(69.63평) | 건물규모 지상 2층 | 건축면적 114,54㎡(34.65평) | 연면적 228,06㎡(68.99평) | 건폐율 49.76% | 용적률 99.07% | 주차대수 2대 | 최고높이 9.5m | 공법 기초 - 철근콘크리트, 지상 - 경량목구조 | 구조재 2×6 캐나다산 구조목재 2&BTR SPF등급 | 지붕마감재 2×10 캐나다산 구조목 2&BTR SPF등급 | 단열재 에코베트(R21, R30), 스키아트 일반사단열재 | 외벽마감재 컬러강판, 스톤(Sto) | 창호재 알파칸시스템창호(40mm 로이 3중유리), 폴리카보네이트(32mm) | 설계 ㈜엠엘엔피건축사사무소 이명호, 이성범 | 시공 ㈜GIP







03 1층은 양쪽에 창을 내었다. 주변 사람들과 담 쌓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건축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덕분에 실내는 하루 종일 드는 빛으로 따뜻하다.

석류나무가 있는 마당 넓은 집에서 자란 남편과 어릴 때 일본 단독주택에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아내가 집을 지었다. 여행연습 삼아 두 자녀를 데리고 용인 동백에서 주택 전세를 2년간 살아본 뒤 지은 집. 이 가족의 본격 단독주택 생활을 들으러 판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아이들이 주택에 완벽히 적응해버렸어요. 집에서 뛰고 밤에 피아노 치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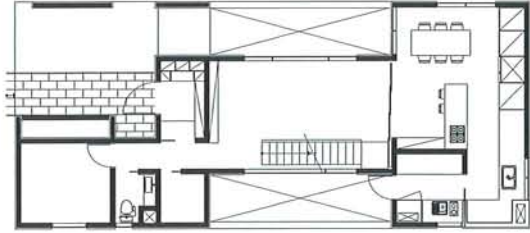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첫째와 연년생 둘째를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었기에 새로 지은 집에는 마당도 있어야 했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했다.

인상적이게도 이 부부가 원하는 ‘집’의 모습을 들어 보니 미끄럼틀을 만든다거나, 야외 테크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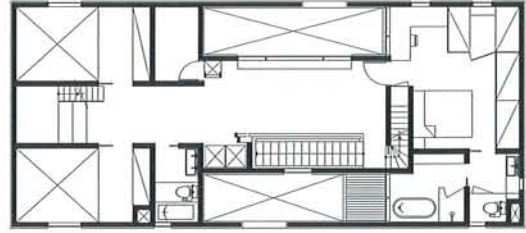
아이가 친구와 함께 토마토를 따고 상추를 가꾸면 참 좋겠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으니 뽀넬 만한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춘기가 되어서도 부모와 놀 수 있는 아담한 공간과 필요하다면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독립된 공간도 있어야 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 집의 밑그림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졌다.

변화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년간의 주택 생활은 부부에게도 큰 선물을 안겨줬다.

“어느 날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앞집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며칠째 불이 안 켜지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되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오더라고요. 또, 동네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상주가 상복을 입기도 전에 걱정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문상 간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이웃이 생겨서 참 좋다’ 싶더라고요”



PLAN -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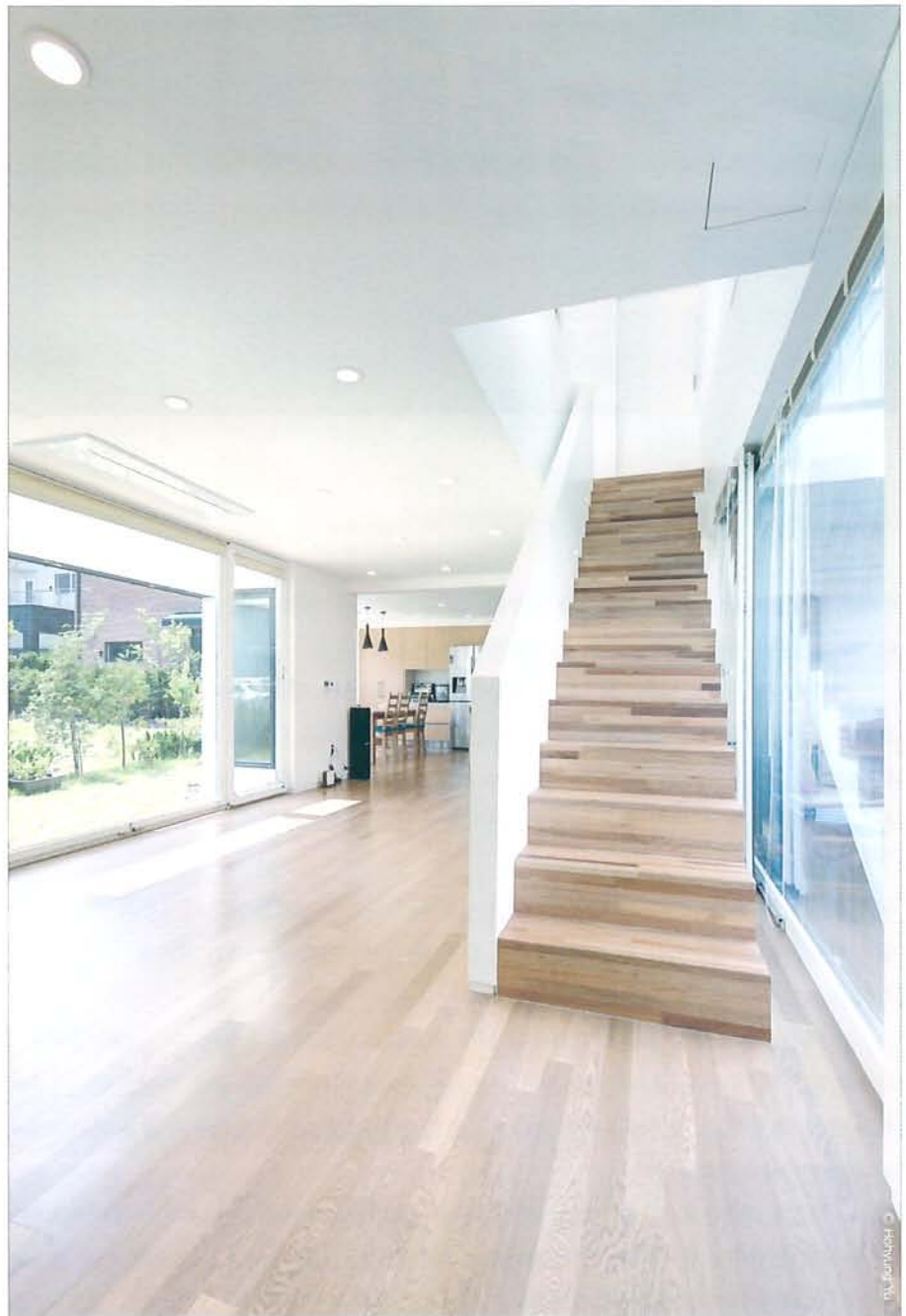
PLAN - 2F

04 잔디밭으로 단장한 서쪽 마당. 반대편에는 데크로 마감해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둔 마당이 하나 더 있다.

05 층을 잇는 계단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이자 때때로 책을 군데군데 쌓아놓고 읽곤 하는 독서실이 되기도 한다.



04 05







아파트에서는 얼굴 보면 목례정도만 나누던, 그저 '옆집 사람'이었는데, 주택에 사니 '이웃'이 됐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존재다.

부부가 만들고 싶은 집의 모습도 달라졌다. 집 앞으로 이웃이 지나가면 인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집에 있으면 상대가 와서 문 두드리기도 좋은 그런 집을 만들고 싶었다고,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의 조화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다. 설계를 맡은 mlnp 건축사사무소 이명호, 이성범 건축가에게 던져진 숙제가 생각보다 컸다.

두 건축가는 'I'자 형태의 평면 양 끝으로 각 실을 배치하고 거실부를 튀우되, 1층은 조정수로 언뜻 시선을 가리는 정도로만 차단하고, 2층은 길게 지나가는 '가림판' 가벽을 설치해 이웃의 시선은 가리고 풍경은 들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저층부는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이 편히 외부와 드나들며 흠을 밟을 수 있도록 동쪽과 서쪽으로 창을 낸 열린 구성이다. 아이들이 뛰놀고 이웃이 모이는 거실은 넓게, 주방은 동선을 아내에게 맞춰 짰다. 종종 방문하는 아이들의 조부모를 위한 게스트룸은 방해받지 않는 현관부에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2층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긴 장방형을 둘로 나눠 아이의 공간, 부부의 공간으로 나눴다. 다락의 쓰임새도 하나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루종일 은은한 빛이 드는 가족의 서재 겸 놀이 장소로, 하나는 부부가 오붓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A/V룸으로 구분했다.

**06** 주방 동선은 아내의 움직임에 맞춰 짰다. 아이들과 베이킹을 즐기는 가족은 아일랜드 식탁을 커다란 스테인리스 판으로 마감해 여기서 요리도 함께 한다.

**07** 2층 한쪽은 부부의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가운데 가족실을 두었다. 가벽 덕분에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실내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08** 가벽의 개구부와 창의 높낮이를 엇갈리게 해 차폐효과를 더했다.



06 07  
08



09 목구조에서는 보기 힘든 넓게 트인 실내와 장스팬, 지지대 없이 경쾌한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철골조로 구조를 보강하고 철판으로 계단의 무게를 받아내게끔 한 건축가의 묘안 덕분이다.





---

## Interior Source

---

|        |                    |
|--------|--------------------|
| 내벽 마감재 | 친환경 도장             |
| 마루     | 이진 온돌마루            |
| 주방가구   | 한샘 키친바흐            |
| 타일     | 가이인터내셔널 타일         |
| 수전     | 한스그로헤,<br>아메리칸스탠다드 |
| 조명     | 퍼플스토리 전등           |
| 현관문    | 성우게이트 제작 단열도어      |
| 붙박이장   | 이케이                |

---

10 11 12 13





10 남동쪽, 폴리카보네이트로 창을 대신한 아이들 공간에는 하루 종일 균일한 빛이 든다.

11 계단실 겸 아이들의 놀이공간. 책도 읽고 피아노도 치며 온 가족이 즐겁게 모여 노는 무대다.

12 두 딸은 박공 양 끝에 위치한 각자의 방을 갖는다. 아직은 어리기에 침실과 놀이방으로 나눠 함께 사용한다.

13 다락에는 지구본을 보며 어디로 가족여행을 떠날지 즐거운 고민을 하곤 하는 아이들의 서재가 자리한다.

“아주 살 맛 나죠!”

집 짓고 살아보니 어떻냐는 질문에 건축주의 대답이 대차다. 접시에 음식이 담겨 가면, 또 뭔가 채워져 돌아오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한두 번 과일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다 보니 주변이 특별한 ‘이웃’이 됐다.

“예전과는 다르게 주택이 많이 젊어졌어요. 젊은 세대도 집을 많이 짓고, 이 동네만 해도 옆집 뒷집 아이 모두 우리 애들과 같은 반 친구들이예요.”

큰딸에게는 벌써 아침마다 “학교가자~”라고 외치는 동네 친구가 생겼고, 학교 끝나고 삼삼오오 텃밭에 모여 방울토마토를 따고 상추에 물도 준다. 둘째는 계단을 뛰어다니며 1층부터 다락까지 내달리기에 여념 없고,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 자매가 박공지붕 아래 서재에서 책도 읽는다. 주택에 살다 보니 외식도 손에 꼽는다. 해가 나면 일부러 브런치를 만들어 들고 나가곤 하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보다 햇살 받아 반짝이는 야외 테이블이 더 근사하다.

“사람도 나이를 먹잖아요. 입버릇처럼 이쁘게 맛있게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집도 멋지게 나이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좋은 집이겠구나’ 생각해요.”

5, 10년 후에도 이 집은 가족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무대가 되어 주리라. 이곳에서 만들어질 가족의 즐거운 미래는 아마도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



이명호·이성범 건축가

건축가 이명호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AA School에서 AA Diploma 학위를 받았다. 이후 런던에서 KPF, RMJM, Zaha Hadid Architects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영국왕립건축가 자격을 취득했다. 2012년 서울과 런던에 mlnp architects를 설립하여 주거·상업 및 공공시설 등의 건축설계와 말레이시아 클랑시 마스터플랜 등의 도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서울시립대에 출강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축가 이성범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와 ZIP partners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건축사를 취득한 뒤 mlnp architects에서 활동 중이다.

02-572-8026 | www.mlnparchitects.com